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3월 1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월 11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3.11.(목)	담당부서	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정경록 과장(044-203-4870)	담 당 자	맹윤경 주무관(044-203-4864)

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, 통상법으로 파헤친다.

① 산업통상자원부, 2021년 『제1차 통상법포럼』 개최
② 新통상 이슈인 탄소국경세의 통상법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논의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'21.3.11일(목)에 **김정일 신통상질서 전략실장 주재**로 **'제1차 통상법포럼'**(화상회의)을 개최하였음

○ 이번 포럼에서는 '21년도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**탄소국경세**의 **통상법적 쟁점을 검토**하고 **정책적 시사점을 논의**하였음

○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**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발제**하고, **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, 시사점에 대한 토론**에 참여하였음

○ 탄소국경세 도입시 다양한 영향이 불가피한 **철강·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도 다수 참석**하여, 관련 논의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음

【 회의 개요 】

- **일시 / 장소** : '21.3.11(목), 15:00 ~ 17:00 / 서울, 세종, 시드니(화상 회의)
- **주 제** : "탄소국경세 관련 통상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"
- **주 관** : 무역구제학회(책임연구원 :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)
- **참 석** :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(주재) 외 정부·업계·학계·법조계 관계자 70여명

(발표자) Felicity Deane 교수(호주 퀸즈랜드 기술대)
(토론자) 박덕영 교수(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), 이재형 교수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)

□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,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등 **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**되는 가운데,

○ EU, 미국 등 **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가 급물살**을 타면서, 탄소국경세에 대한 **통상규범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마련**되었음

* EU('19.12)·중국('20.9)·일본('20.10) 탄소중립선언, EU 탄소국경조정계획 발표('19.12), 캐서린 타이 美 USTR 지명자 탄소국경세 도입 발언('21.3) 등

□ 포럼에서 Felicity Deane 교수는 탄소국경세 **도입방안 및 효과**와 함께, GATT 제1조(최혜국대우)·제3조(내국민대우)·제20조(일반예외), 보조금협정 등 **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**하였음

○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, **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**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,

○ **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**이 **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,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** 등을 집중 점검하였음

○ 이번 포럼을 주재한 **김정일 산업부 실장**은 **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**이 있다고 언급하면서, **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**하여 **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**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

○ 또한, **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**하고 있고, 디지털, 노동 등 **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**하는 만큼, 앞으로 **통상법 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**고 하였음

□ 앞으로 산업부는 통상법포럼을 통해, 기후변화 외에도 **WTO 체제 개혁, 디지털, 국영기업 관련 규범**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맹윤경 주무관(☎ 044-203-48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